

Artist's Statement

김시현

보자기, 오늘을 품다

보자기를 통해 주는 이가 받는 이에게 보내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표현되기를 바랐고 나아가 그 안에 품고 있는 '특별한 궁금증과 설렘'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보자기는 본래 물건을 싸서 운반하는 실용적인 목적이 있으나 내 작품으로 표현되는 보자기 형상은 시각적 이미지를 넘어 상대방과 소통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을 품고자 하는 포용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

사물들이 감추어져 그 보자기 속에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The Precious Message"라는 작품 명제에서 말하듯 포장된 도구의 특별한 장식성으로 인해 이미 소중하고 특별한 전언일 것으로 읽히게 만들고 있다.

또한, 보자기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포용할 수 있는 유동적 넓이와 품을 지닌 물건이다. 사람들의 아픈 사연이나 상처를 품고 보듬어주며 나아가 치유의 의미까지도 내포한 보자기라는 모티브는 내게 너무나 매력적이다.

또한 예로부터 우리는 음양오행 사상을 중심으로 색의 의미와 상징을 생각하며 색을 사용하거나, 사회 계급이나 상황에 따라 색을 사용하면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색을 활용했다. 흔히 한국의 전통색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다섯 가지 방위를 나타내는 오방색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다채롭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 고유의 색이 존재하고 있다.

어울림과 색색으로 이어 만든 색동의 균형과 조화, 오색영롱한 빛깔의 다채로운 색에는 한국인의 색감인 결합과 화합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김시현의 보자기는 화려함 속에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어머니 같은 마음과 새색시의 수줍음 같은 부끄러움이 서려 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는 것은 모성의 본능이고 조건 없는 지극한 사랑이며 새색시의 수줍은 부끄러움은 겸손과 사양의 미덕이다. 보자기가 갖는 사랑과 정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보자기는 오방색의 화려함 속에 감춰진 현대인의 욕망을 품은 명품 로고가 겹 보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게 특징이다. 욕망은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은폐된 정서로 일상적으로는 이성에 의해 관리되거나 통제되지만 끊임없이 이성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의 잠입을 꿈꾼다. 쉽게 제어되지 않는 욕망도 보자기의 품속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응한다.

서양의 딱딱한 가방은 한정된 공간 안에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동양의 부드러운 보자기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안에 품고 포용할 수 있는 유동적 넓이와 품을 지닌 물건이다. 보자기는 자연이든 인간이든 무생물이든 그것들의 아픈 사연이나 상처를 품어 안아 치유해 주고 삶을 보듬어준다.

우리의 보자기에는 무엇을 싸든 간에 그 형태가 다르다. 둥근 것을 싸면 둥글게, 길쭉한 것을 싸면 길쭉하게, 납작한 것을 싸면 납작해지고 쌀 게 없으면 평면으로 돌아가는 요술까지 부린다.

국문학자 고 이어령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모든 도구, 모든 시설들이 가방이 아니라 보자기처럼 디자인되어 유무상 통의 철학을 담게된다면 앞으로의 인류문명은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편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보자기에는 이러한 융통성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속에 무엇을 비밀스레 간직했는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소중한 무엇인가를 감싼 보자기의 한쪽 매듭을 풀면 고이 간직해 온 이야기보따리가 무한히 펼쳐질 것만 같다.

-2025년 김시현-